

경제 매크로 이벤트 데이터의 이면분석

최예찬 | 경제/FX/원자재
02-3779-3519
yc.choi@sangsanginib.com



QR코드로 간편하게
상상인증권
투자전략팀 채널

미국 5월 고용: 너무 좋아도 문제

미국 5월 고용 +17.2만명, 예상치 대폭 상회

6/5 발표된 미국 5월 비농업고용자 수는 전월대비 17.2만명 증가를 기록했다. 이는 시장 컨센서스(8만명 전후)를 두 배 이상 상회한 수치였다. 실업률은 4.3%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시간당 평균임금은 전월대비 +0.3%, 전년대비 +3.4% 증가를 기록하였다. 이번 고용보고서에서 주목할 부분은 과거 수치의 대폭 상향수정이다. 3월 고용은 +2.9만명 상향(+18.5만 → +21.4만명), 4월 고용은 +6.4만명 상향(+11.5만 → +17.9만명)으로 조정되며, 두 달을 합산하면 기존 대비 +9.3만명이 높아졌다. 이로써 최근 3개월 평균 고용 증가폭은 약 +18.8만명 수준으로 재집계되어 고용 정체 우려를 상당 부분 되돌렸다. 전쟁발 소비 둔화 우려가 상존하는 국면에서 예상을 크게 웃돈 헤드라인 고용은 시장의 침체 우려를 완화했지만, 동시에 연준의 긴축 경계감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정책금리에 민감한 미 국제 단기물 중심으로 10bp 이상 금리 상승, 위험자산 투자심리 악화로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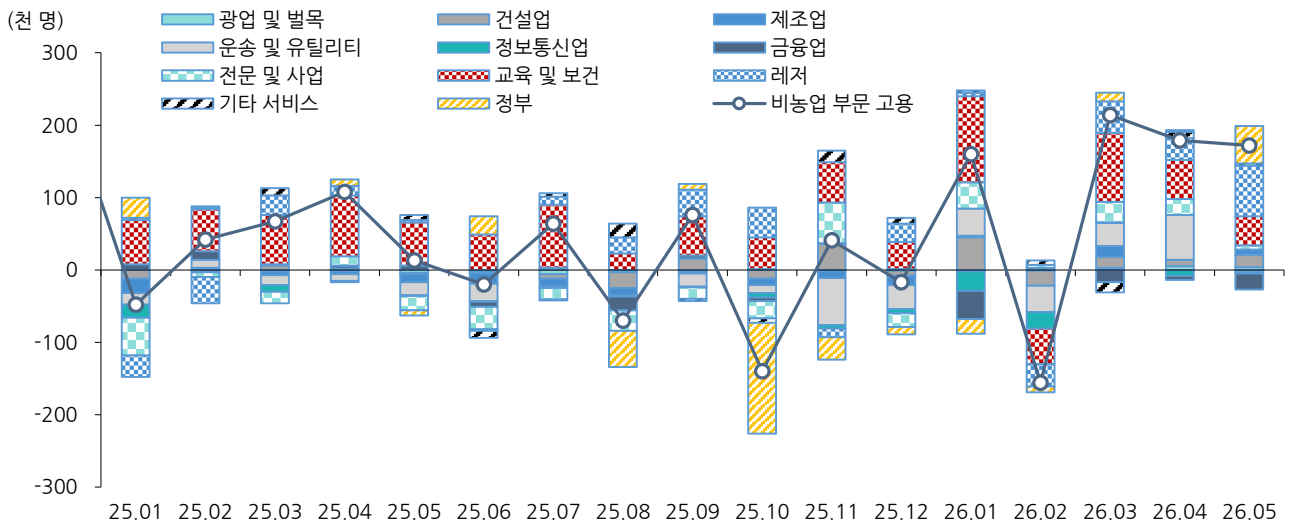
레저·숙박, 지방정부에서 서프라이즈, 헬스케어는 추세 유지

세부 업종별로 보면 5월 고용 증가는 레저·숙박(+7.0만명), 지방정부(+5.5만명), 헬스케어(+3.5만명)에 집중됐다. 헬스케어 업종은 고령화 등 구조적 영향으로 최근 12개월 평균(+3.8만명) 증가세와 유사한 증가 폭을 기록 중이다. 다만 레저·숙박은 음식·주점 서비스(+4.8만명)를 중심으로 직전 12개월 평균 증가 폭(+1.4만명)을 크게 상회했다. 레저·숙박 업종의 서프라이즈는 6월 11일 개막하는 북중미 월드컵 영향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으나, 고용조사의 기준이 통상 12일을 포함하는 기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5월 수치는 개막보다 약 4주 앞선 시점의 고용 상황을 반영한다. 따라서 월드컵 영향만으로 단정하긴 어렵고, 본격적인 대회 관련 인력 수요는 6~7월 고용 보고서에 더 크게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제조업은 +0.7만명으로 소폭 증가에 그쳤고, 금융업은 감소를 기록했다. 그 외 건설, 운송·창고, 전문·사업서비스 등 주요 업종에서도 전월대비 소폭의 증가를 나타냈다.

고용 둔화 우려는 제한적,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여력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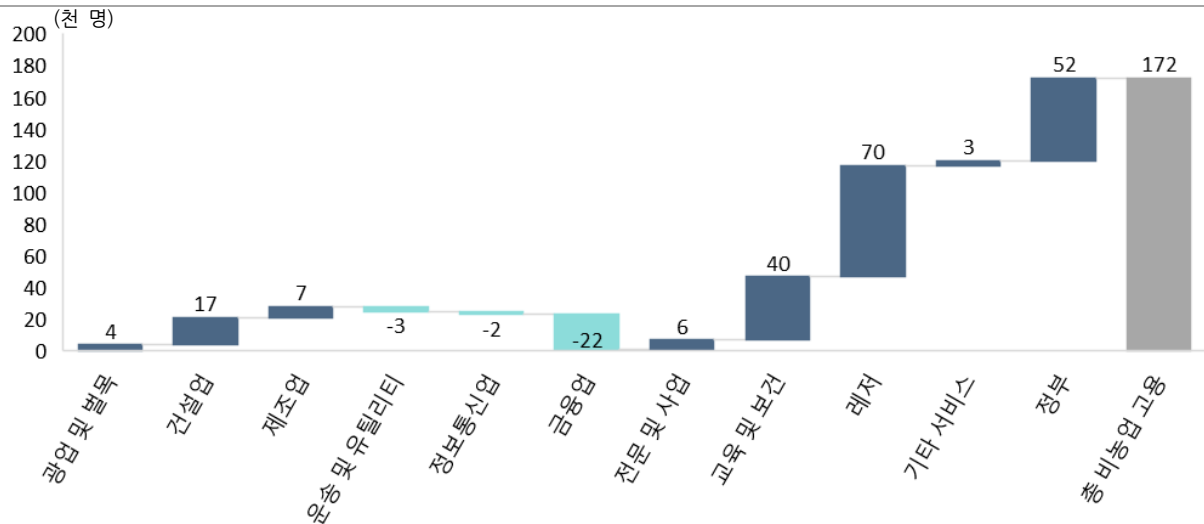
월드컵이라는 일시적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직전 2개월 고용의 상향조정(+9.3만명)을 고려하면 연초 고용 정체 우려와 달리 견조한 추세가 확인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더욱이 고용 집계 기준주에 집중된 토네이도와 걸프 연안 홍수로 인해 고용에 우호적이지 않았던 기상 여건을 반영하면 오히려 구조적 고용을 과소평가했을 가능성도 크다. 견조한 고용으로 인해 완화적 통화정책의 명분은 약해졌으며, 물가안정에 집중할 여력이 확보되었다. 따라서 금주 수요일 발표될 5월 CPI가 연준의 정책 판단에 있어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그림 1. 월별 비농업 고용 기여도 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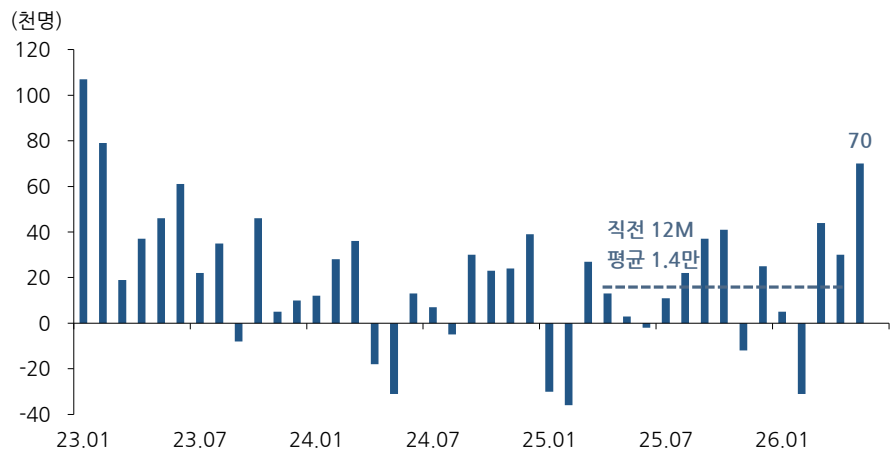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2026년 5월 비농업 부문 고용 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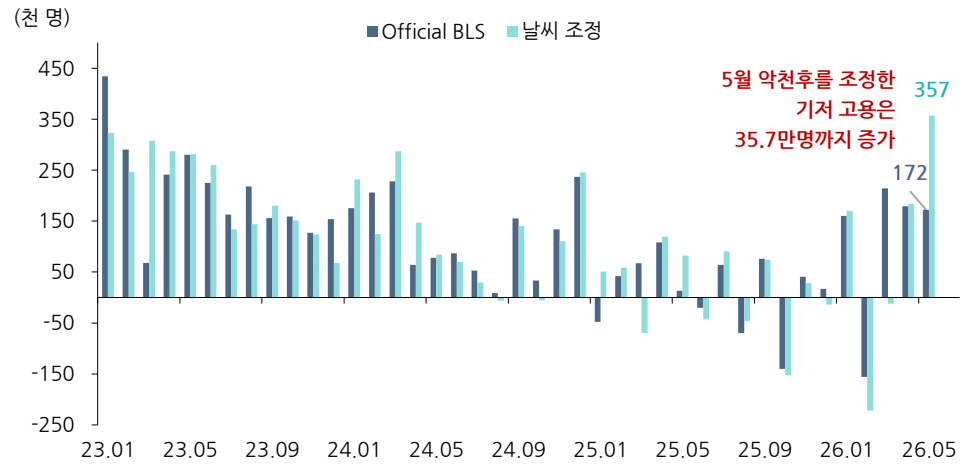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레저 및 숙박 업종의 고용 증가 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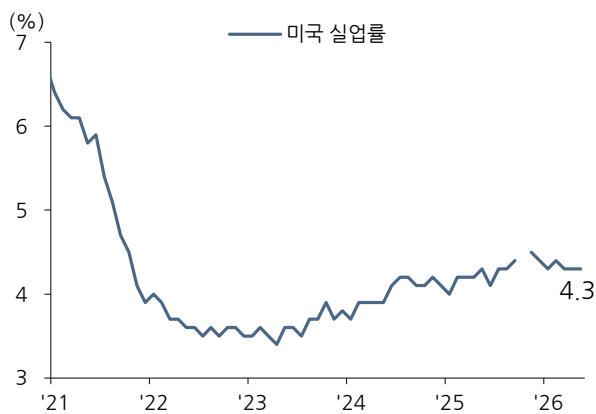
자료: BLS,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BLS 공식 비농업 고용 발표와 샌프란시스코 연준의 날씨 조정 비농업 고용



자료: BLS, 샌프란시스코 연준,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5. 미국 실업률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6. 미국 시간당 평균 임금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최예찬)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